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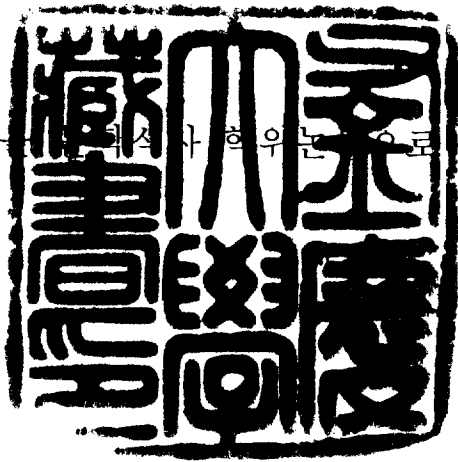
문학석사 학위논문

한영 지시 표현의 비교분석

- 유생성 부호화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은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 소 영

김소영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1년 12월 26일

주 심 문학박사 오 준 일

위 원 문학박사 전 춘 배

위 원 문학박사 김 은 일



(인)

<제 목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2.1 일반적 위계	3
2.2 인칭 위계	7
2.3 개별성 위계	10
III. 언어 자료 및 연구 방법	13
3.1 언어 자료	13
3.2 연구 방법	16
3.2.1 대명사	16
3.2.2 명사구	21
3.2.3 이 름	23
3.2.4 생 략	24
IV. 지시 표현의 유생성 부호화	27
4.1 1인칭	27
4.1.1 단수	27
4.1.2 복수	35
4.2 2인칭	39
4.3 3인칭	46

4.3.1	단수	46
4.3.2	복수	54
V. 결 론		59
ABSTRACT		61
참고 문헌		63

<표 목차>

<표 1> 1인칭 단수의 지시 표현 분포	27
<표 2> 1인칭 단수의 평행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32
<표 3> 1인칭 단수의 원문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34
<표 4> 1인칭 복수의 지시 표현의 분포	35
<표 5> 1인칭 복수의 평행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37
<표 6> 1인칭 복수의 원문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38
<표 7> 2인칭의 지시 표현 분포	39
<표 8> 2인칭의 평행자료의 지시 표현의 분포	44
<표 9> 2인칭의 원문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45
<표 10> 3인칭 단수의 지시 표현 분포	46
<표 11> 특정 명사구의 지시 표현 분포	50
<표 12> 3인칭 단수의 평행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51
<표 13> 3인칭 단수의 원문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52
<표 14> 3인칭 복수의 지시 표현 분포	54
<표 15> 3인칭 복수의 평행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56
<표 16> 3인칭 복수의 원문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57

<그림 목차>

<그림 1> 일반적인 유생성 위계 정도	6
-----------------------------	---

I. 서 론

유생성(animacy)은 생명이 있는 생물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생명 자체의 자질뿐만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운동(locomotion), 유정성(sentiency)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유생성의 의미영역은 개별 언어에 의미·기능적인 요소로서 영향력 있게 작용한다. 이러한 유생성이 언어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부호화 되어 다른 문법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Comrie 1989, Croft 1990, Yamamoto 1999, 김은일 2000). 유생성 현상은 격 표시(case marking), 어순(word order), 수 구분(number distinction), 동사의 일치(agreement)와 같은 다양한 언어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Lyons(1977)는 언어사용자들이 지시 표현으로 유생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지시 표현은 유생성을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중의 하나이고 인간의 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 지시 표현이란 등장인물을 가리키는 지칭어로서 인칭 대명사(personal pronoun), 사람 고유명사(human proper noun), 사람보통명사구(human common noun)로 나타난 언어적 표현을 말하는데, 이러한 지시 표현들이 담화·인지적인 이유로 생략¹⁾된 현상도 유생성의 관점에서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생성을 인지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 개념이 어떻게 영어와 한국어의 지시 표현으로 다르게 부호화 되는지를 비교·분석

1) 생략은 공지시(coreference)를 나타내는 한 수단이고(Hinds 1986: 106-107), 화제 연속성의 무표적 지시어이다(Hinds 1983: 49).

하는 것이다. 또한 유생성의 하위 개념을 구성하면서 상호 영향을 끼치는 매개요소들 - 인칭 위계, 개별성 위계 - 을 살펴본 후 유생성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두 언어의 유생성 부호화 비교를 위해서 문어체에 한정하여 평행언어자료(parallel corpus) - 영어 원문과 그 한국어 번역문, 한국어 원문과 그 영어 번역문 - 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영어와 한국어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원문 자료도 추가하여 조사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유생성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와 유생성 위계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유생성 부호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조사할 언어 자료와 연구 방법에 대해 서술하겠다. 4장에서는 언어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어와 한국어에서 유생성이 지시 표현으로 어떻게 부호화 되는지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의 장들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겠다.

II. 이론적 배경

유생성은 생명이 있는 생물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구분하는 인지적인 개념이다.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로 구분한다는 것은 유생성에 위계가 있음을 가정하는 것인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유생성 위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생성의 위계는 일반적 유생성 위계(General Scale of Animacy)와 이를 더 세분화하여 확장시킨 인칭 위계(Hierarchy of Person), 개별성 위계(Individuation Scale)로 나눌 수 있다. 이 위계들은 유생성의 하위 개념을 구성하고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언어 현상에 영향을 끼친다. 아래에서는 세 가지 위계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1 일반적 유생성 위계

유생성 개념은 일반적으로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된다. 이 때 생물은 무생물보다 유생성 위계에서 상위를 차지한다. 즉 생물이 무생물보다 유생성이 더 높은 것이다.

(1) 일반적인 유생성 위계

animate > inanimate

(1)과 같이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제시했듯이 특정한 의미들 때문이다.

먼저 Locke(1694)와 Fowler(1977: 16-17)는 '운동(locomotion)'이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 짓는 의미적 자질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하거나 변화하는 능력을 '운동'이라 하고 생물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힘이 부족하였을 경우에는 무생물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식물은 자라고, 꽃을 피우는 활동을 하지만 운동이 없으므로 전형적인 생물로서 인지될 수 없다. 그리고 아메바와 같이 육안이 아닌 현미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개체도 운동을 하더라도 생물로서 인지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인간과 너무 동떨어진 영역에 속해 있을뿐더러 직접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개체이므로 '유정성(sentiency)'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정성이란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서 생물이 가지게 되는 중요한 의미적 자질로 작용한다.

지금까지는 생물과 무생물에 대한 일반적인 위계를 살펴보았는데 다음 (2)에서는 인간과 동물 그리고 무생물로 재수정 된 위계를 살펴보자.

(2) 수정된 유생성 위계

Human > animal²⁾ > inanim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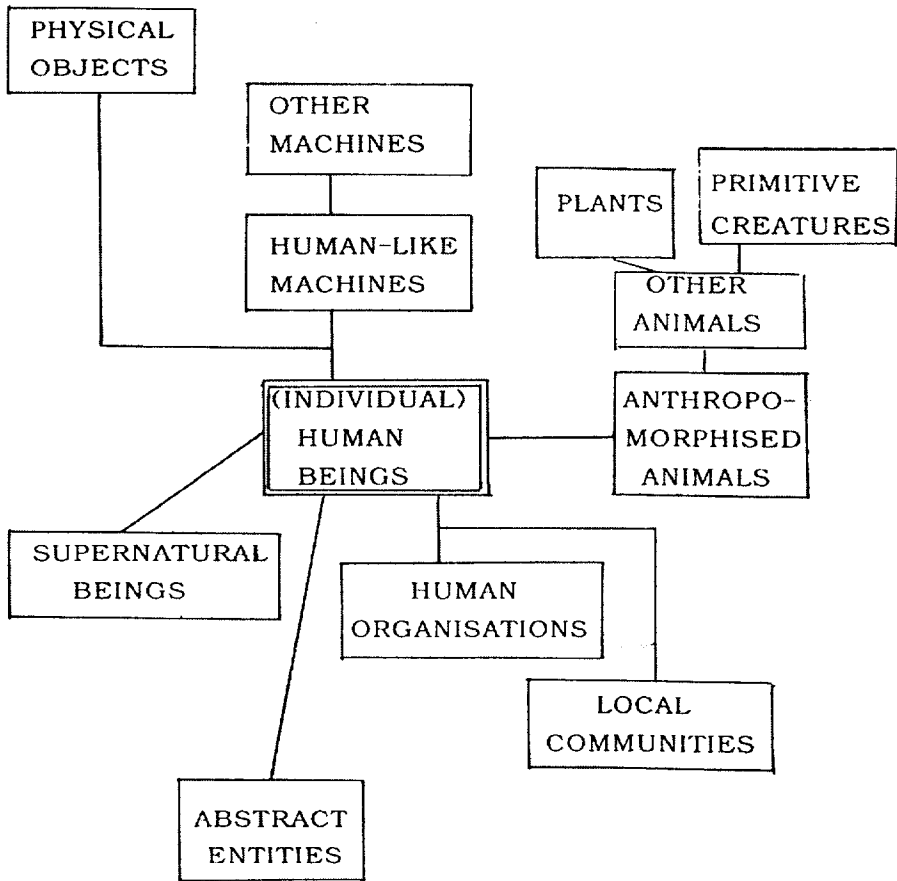
2) 인간도 '동물'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인간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인간이 '동물'보다 더 높은 위계를 차지하게 되므로 인간은 고등 동물로서 간주되어 '동물'과 구별된다.

이 위계는 인간에서부터 생물 그리고 무생물에 대한 구분으로서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인지를 바탕으로 한다. 인간이 생물보다 상위에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고 특권을 지닌 존재임을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을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의 구분으로 대신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인간이 무의식 중으로 모든 생물체의 대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Lakoff(1987: Ch.6)는 유생성이 정도(gradience)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위계가 정해진다는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을 제시하였다. 그는 한 범주 안에서도 핵심 구성 성분이 있고 주변적인 구성 성분이 있는데, 생물 내에서도 좀 더 생물적이라 할 수 있는 개체가 있고 좀 더 주변적이라 할 수 있는 개체가 있다고 하였다. 즉, 유생성이 높은 생물을 전형적인 것으로 보고 유생성이 낮은 생물을 주변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Yamamoto(1999: 22)는 Lakoff의 원형이론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은 위계를 도식화하였다. 그는 인간을 유생성이 가장 높은 전형적인 것으로 보았으므로 중앙에 위치시키고, 유생성이 낮은 것일수록 주변적인 것으로 보고 중앙에서 먼 곳으로 위치시켰다.

<그림 1> 일반적인 유생성 위계 정도 (Yamamoto 1999)



2.2 인칭 위계

Langacker(1991: 307)는 앞에서 제시한 일반적 유생성 위계를 유생 명사 안에서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여 아래 (3)과 같은 인칭 위계를 제시하였다.

(3) 인칭 위계

화자 > 청자 > 제삼자 > 생물 > 물리적 사물 > 추상적 개체

인칭 위계에서는 인간의 범주 내에서 1인칭 화자(speaker), 2인칭 청자(address), 그리고 3인칭(others)인 제삼자가 발화역할(speech role)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3)에서 화자는 위계 내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청자, 그리고 제삼자 순으로 배열된다. 이러한 구분은 '감정이입'³⁾(Foley와 Van Valin 1985)에 의한 유생성의 정도 차이 때문이다. 인칭 위계를 감정이입 위계라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감정이입이 많이 될수록 유생성은 높아지는데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지닌 화자는 발화행위(speech act)에서 자신에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어서 청자에 비해 유생성이 높아진다. 제삼자는 발화 참여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됨으로 발화 참여자인 청자에 비해서 감정이입의 정도가 낮고 유생성도 낮다.

3) Locke(1694)는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에서 인간은 자신이 행동하고 말하는 능력을 비슷한 모양을 지닌 다른 개체에도 부여하여 마치 의식이 있는 존재로 추론하는 능력으로 '감정이입'을 제시하였다. 비록 자기와 다른 모양, 다른 형태를 지닌 개체라 할지라도 인간이 지닌 의식(consciousness)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이입에 의한 것임을 명시했다.

인칭 위계는 지시성 즉 '직접성(directness)'과도 관련이 있다. 본질적으로 화자인 1인칭과 청자인 2인칭은 직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두 인칭이 발화사건에 참여자로서 직접적으로 지칭되기 때문이다(Lyons 1977: 848, Anderson과 Keenan 1985: 259, Halliday 1985: 291). Brown과 Levison(1978: 195-211)에 따르면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체면손상영향(face threatening effect)을 끼친다고 한다.

영어에서는 유생성을 강하게 부호화 함으로써 일어나는 체면손상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3)과 같이 appear, look, seem과 같은 동사를 사용한다(Brown과 Levinson 1978: 195-211).

(3) a. *It appears* (seems to me) that I was wrong.

b. There are no buses so *it looks like* we'll be walking home.

(3a), (3b)에서는 I think를 대신하여 가주어 it이 이끄는 appear, look like와 같은 구문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이나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체면손상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번에는 2인칭의 사용으로 생기는 체면손상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3인칭 총칭대명사로서 one이 사용되었을 때를 살펴보자.

(4) a. *You* mustn't behave that way.

b. *One* mustn't behave that way.

(4a)에서 you는 직접적인 지시어로서 상대방에게 체면손상영향을 끼치는 반면, (4b)에 사용된 one은 you가 포함된 총칭을 의미하는 간접적인 표현이므로 유생성이 낮다. 따라서 직접 지시어 you와는 달리 상대방에게 미치는 체면손상영향을 줄일 수 있다.

앞서 1, 2인칭이 가지는 직접적인 성격을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체면손상영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3인칭이 1, 2인칭의 직접성과 어떻게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3인칭은 발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의 발화 영역 내에서 영향을 받는 방관자(bystander)로 간주된다(Leech 1983: 131). 3인칭이 발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지칭이 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지시성이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1, 2인칭에 비해서 유생성의 정도는 낮다(Anderson과 Keenan 1985: 261, Halliday와 Hasan 1976: 48-51). 아래의 (5)를 살펴보자.

(5) Watch out! *He* must be totally drunk.

he는 발화상황에 존재하고 있더라도 he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지칭이 이루어질 수 없고 제삼자로 간주되어지는데 이것은 3인칭의 본질적인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2.3 개별성 위계

Foly와 Van Valin(1985: 288)은 유생성이 부호화 되는 언어적 장치 즉, 명사적 표현들의 위계를 아래 (6)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이를 개별성 위계라고 한다. 개별성 위계는 한 개체가 얼마나 한정적(limited)이고 식별 가능한지(identifiable)를 나타내는 정도로서 앞서 설명한 인칭 위계의 3 인칭을 세분화한 것이다.

(6) 개별성 위계

화자/청자 > 제삼자 > 사람고유명사 > 사람보통명사 >
다른 생물명사 > 무생물명사

(6)에서 화자, 청자 그리고 제삼자는 인칭대명사라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개별성 위계는 인칭대명사(pronouns), 사람고유명사(human proper nouns), 사람보통명사구(human common nouns) 사이의 위계를 말하는 것이다.

우선 인칭대명사는 개별성 위계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개별성이 높으므로 유생성을 강하게 부호화 하는 언어적 표현이다. Mühlhäusler와 Harre(1990)는 인칭 대명사를 '본질적 인간'(bare human being)으로 표현하고, 이 지시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보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칭 대명사가 개별성이 가장 높고 유생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본질적 성격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인칭대명사 다음으로는 사람고유명사가 사람보통명사구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명사적 표현들의 위계를 아래의 (7)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7) a. Can I speak to *John*, please?

b. Can I speak to *the junior bursar*, please?

(7a)에서는 John이라는 이름이 직접 불려진 반면 (7b)에서는 그의 사회적 지위 또는 역할인 the junior bursar로 불렸다. John은 그의 역할로 불림으로써 그가 일하는 곳을 대표하는 비인간화(dehumanised), 제도화(institutionalised)된 개체가 된다. 이로 인하여 I와 the junior bursar와의 심리적인 거리는 I와 John과의 심리적인 거리보다 더 멀어지게 됨으로 the junior bursar는 John보다 개별성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사람보통명사구는 사람고유명사보다 유생성이 낮아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유생성의 위계를 살펴보고 이 위계가 어떻게 더 세분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일반적 위계는 크게 생물과 무생물간의 위계인데 생물 내에서도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관점에 의하여 인간과 동물로 그 위계가 분화되었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보다 상위에 있게 됨을 보았다. 인간의 범주 안에서도 위계가 생기는데 1, 2, 3인칭으로 구분되고 이를 인칭 위계라고 하였다. 이것은 지시어 본질에 관한 위계로서 1, 2인칭은 3인칭에 비해서 직접적인 표현이고 많은 감정이입을 수반하게 됨으로 유생성이 높음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언어적 표현의 위계인 개별성 위계를 살펴보았다. 한 개체가 얼마나 식별가능하고 한정적인지에 관한 정도로서 명사적 표현의 위계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성 위계를 중심으로 유생성을 나타내는 지시 표현들을 살펴볼 것이다.

III. 언어 자료 및 연구 방법

3.1 언어 자료

본 논문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지시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유생성의 부호화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크게 두 유형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첫 번째는 평행자료(parallel corpus)⁴⁾로서 영어 원문과 그 한국어 번역문, 한국어 원문과 그 영어 번역문으로 구성된다. 평행자료는 같은 내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로 쓰여진 점에서 두 언어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영어 원문과 그 한국어 번역문은 자료 1과 같이 *Reader's Digest*와 그 영한대역, 자료 2와 같이 *Newsweek*지에서 발췌한 기사와 그 영한대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1. *Reader's Digest*와 그 한국어 번역문

- ① "Most important hour in a child's day" by Harriet Webster
와 "하루 중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2001년 7월)
- ② "Give yourself the winning edge" by Suzanne Chazin와
"역경을 딛고 성공하려면"(2001년 7월)
- ③ "A place where dreams come true" by Patty McCormick와
"꿈을 실현시켜주는 뉴욕의 도서관"
(*Reader's Digest* 55집, 2001년 10월~12월)

4) Baker(1995)는 어떤 언어로 이루어진 원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글을 실질적인 의미의 평행자료라고 일컬었다.

- ④ “Unforgettable Graham Jackson” by Andrew Hill과 “잊을 수 없는 그레이엄 잭슨 선생님”

(*Reader's Digest* 55집, 2001년 10월~12월)

- ⑤ “Lies men tell women” by Joice Brothers와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잘하는 거짓말”

(*Reader's Digest* 55집, 2001년 10월~12월)

자료 2. *Newsweek* 2001년 10월호 기사

- ① “The warriors of the night”와 “밤의 전사들 비밀 작전을 시작했다”

- ② “Bush goes to battle stations”와 “부시가 마주한 안팎의 전선”

- ③ “The Jihad next door”와 “테러와의 전쟁 또 다른 전선”

- ④ “Epidemic threats”와 “생물 테러 이제 실제상황이다”

한국어 원문과 그 영어 번역문으로는 자료 3과 같이 이문열의 단편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87)과 이를 Kevin O' Rourke이 영어로 번역한 *Our Twisted Hero*(1990)를 선택하였다.

자료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Our Twisted Hero*

두 번째는 영어와 한국어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진 영어 원문과 한국어

원문이다. 평행자료는 한 언어로 구성된 내용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성격이 비슷하면서 서로 영향을 받지 않은 두 개의 원문을 조사하는 것은 두 언어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영어 원문은 자료 4와 같이 *Reader's Digest*에서 발췌하였고 한국어 원문은 『샘터』에서 발췌한 자료를 선택하였다. 자료 선정에 있어서 장르적 특성은 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자료 4. *Reader's Digest* (2001년 10월)

- ① "Bridge over troubled water"
- ② "I once was lost"
- ③ "Doing it this way"
- ④ "Ace"

자료 5. 『샘터』 (2001년 11월)

- ① "무책임한 한국인"
- ② "도시 쓰레기 별곡"
- ③ "연기에 충실한 사람들"
- ④ "누가 진짜 껌덩이인가?"
- ⑤ "아내의 사랑으로 되찾은 건강"
- ⑥ "1초 1분의 미학"
- ⑦ "사랑은 기쁨 주고, 희망 주고"

⑧ “하모니카 들고 찾아간 가을”

3.2 연구 방법

유생성은 지시 표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지시 표현이란 등장인물을 가리키는 지칭어로서 인칭대명사(pronoun), 사람고유명사(name), 사람보통명사구(common noun)로 나타난 언어적 표현을 말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지시 표현들이 담화·인지적인 이유로 생략(ellipsis) 되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지시 표현의 한 종류로 간주한다. 두 언어의 유생성 부호화 특징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시 표현이 자료에 사용된 빈도를 조사하였다. 아래에서는 조사 항목으로 사용된 네 가지 종류의 지시 표현이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조사되었는지를 본다.

3.2.1 대명사

본 논문에서 대명사⁵⁾는 인칭대명사를 말하는데 먼저 영어의 대명사를 살펴보자. 대명사는 1, 2, 3인칭별로 주격, 목적격, 그리고 재귀대명사로

5) Quirk et al.(1985: 109)은 대용어 중에서 특별히 명사구와 관계가 있는 범주를 대명사로 불렀다. 대명사의 지시적 의미는 언어적 또는 상황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대명사는 중심대명사(인칭대명사 e.g., I, me, 재귀대명사 e.g., myself, 소유대명사 e.g., my, mine), 관계 대명사(which, that), 의문대명사(who, what), 부정대명사, 지시대명사(this, that)로 분류된다. 본 논문에서는 중심대명사중에서도 인칭대명사와 재귀대명사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한정한다. 1, 3인칭은 단·복수에 있어서 대조를 보여 단수와 복수로 나누었지만 2인칭은 단·복수 구분 없이 조사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2인칭 *you*가 형태적으로 단·복수의 구분이 없고, 둘째로는 문맥 내에서 단·복수를 추정할 수 있더라도 항상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인칭은 (8a), (8b)와 같이 *I, me, myself, we, us, ourselves*, 2인칭은 (9a), (9b)와 같이 *you, yourself, yourselves*, 3인칭은 (10a), (10b), (10c)와 같이 *he, she, they, him, her, them, himself, herself, themselves*의 형태를 가지는 대명사로 국한한다.

- (8) a. If he had reprimanded *me* in a loud voice, *I* think *I* would have stood up to him and asserted *myself*.

(자료 3, *Our Twisted Hero*)

- b. *We* had two rules at our house.

(자료 1, *Reader's Digest*, "Most important hour in a child's day")

- (9) a. If *you* can talk, then *you* can sing

(자료 1, *Reader's Digest*, "Unforgettable Graham Jackson")

- b. I'll see *you* for a minute in the faculty room.

(자료 3, *Our Twisted Hero*)

- (10) a. *He* had gotten out of bed to walk to the phone in the early morning hours.

(자료 2, *Newsweek*, "Bush goes to the battle stations")

- b. Within minutes, I felt as if I'd known *her* for years.

(자료 5, *Reader's Digest*, "I once was lost")

- c. At the break, *they* stood at a distance stealing quick glances across.

(자료 3, *Our Twisted Hero*)

다음은 한국어의 대명사를 살펴보자. 한국어에서는 1인칭 단수 대명사를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는 '내', '나', 겸사말인 '저', '제', 그리고 주격조사와 결합된 '난'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1인칭 복수는 '우리들', '우리'와 같은 형태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를 대명사로 간주한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면 1인칭 단수 대명사는 (11a)의 '나는'과 (11b)의 '나를'과 같은 형태를, 1인칭 복수 대명사로는 (12)와 같이 '우리는'을 대명사로 취급하였다.

- (11) a. *나*는 여행하는 것과 사람 만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자료 4, 『샘터』, "무책임한 한국인, 친절한 한국인")

- b. 선생님이 *나*를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자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자료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12) **우리**는 전화 받는 사람을 하나 정해 전화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게 하죠.

(자료 1, *Reader's Digest*, "Most important hour in a child's day")

2인칭은 본 논문에서 (13a), (13b)와 같이 ‘너’, ‘자네’, ‘당신’, ‘넌’, ‘너희들’등으로 나타난 형태를 대명사라고 한다. 2인칭의 단·복수 구분이 없는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명사 뒤에 형태소 어미 ‘-들’이 첨가되어 단·복수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도 2인칭은 담화 속에서 단·복수가 항상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단·복수를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 (13) a. “**너** 귀먹었어? 급장이 목메지 않도록 물 한 컵 갖다주란 말이야. 오늘은 **내가** 당번이니깐”

(자료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b. “난 **너희들**이 바로 이 음을 소리내주길 바라고 있어”

(자료 1, *Reader's Digest*, "Unforgettable Graham Jackson")

3인칭에서는 (14a), (14b)와 같이 ‘그/그녀’와 같은 형태를 대명사로 본다. 마지막으로 3인칭 복수는 (15)에서 접미사 ‘-들’이 붙은 ‘그들’과 같은 형태를 대명사로 한정한다.

(14) a. 그가 1년 남짓 일해 온 110층 무역센터 빌딩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료 4, 『샘터』, “금간 바위틈에 핀 꽃”)

b.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늘 껌땡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했다.

(자료 4, 『샘터』, “누가 진짜 껌땡이인가?”)

(15) 그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인내하면서 오늘날 미국흑인이 이룩한 수많은 일들의 기초를 쌓아왔다.

(자료 1, *Reader's Digest*, "Unforgettable Graham Jackson")

영어에서 '-self'로 표현되는 재귀대명사를 대명사로 간주하였듯이 한국어에서도 '-자신'이 붙는 재귀대명사를 대명사로 취급한다. (16)의 '내 자신', (17)의 '너 자신'과 같은 형태를 대명사의 범주에 넣는다.

(16) **내 자신**이 변한 것도 없건만, 담임선생도 돌아온 탕아를 맞는 아버지처럼 그런 나를 따뜻이 반겨 주었다.

(자료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7) “어쩌면 **너 자신**은 급장이 될 수 없다고 믿어? 만약 네가 급장이 되었다고 생각해봐라.”

(자료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3.2.2 명사구

본 논문에서 명사구란 사람보통명사구(common noun phrases)를 지칭한다. 조사 대상이 되는 명사구는 본 논문에서 주로 인물의 사회적인 지위, 신분, 역할, 직업, 가족 관계, 연령, 성을 말해주는 명사들을 뜻한다. (18), (19)와 같이 'the president'와 'the teacher'은 한 개체가 사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나 신분을 말한다. (20), (21)과 같이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mother'이나 '아내'도 명사구 범주에 넣는다.

(18) a. In any case, *the president* could reassure the country.

b. 아무튼 **대통령만**이 국민들을 확실하게 안심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자료 2, *Newsweek*, "Bush goes to the battle stations")

(19) a. *The teacher* was puffing continuously on his cigarette to cool his anger down.

b. **담임선생님**은 화를 삭이느라 거꾸 담배를 빨아들이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자 그렇게 나무랐다.

(자료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Our Twisted Hero*)

(20) a. *Mother*, as if she had been waiting for me, began to scold me as soon as I got back from school.

b. 내가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는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렇게 나무라기 시작했다.

(자료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Our Twisted Hero*)

(21) **아내**는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챙기기에 걱정이 태산이다.

(자료 4, 『샘터』, “아내의 사랑으로 되찾은 건강”)

(22), (23)과 같이 연령을 나타내는 ‘어른들’, ‘아이들’과 같은 형태나, (24)에서 성을 나타내는 ‘남자들’도 명사구로 간주한다.

(22) 예방주사가 맞기 싫어 울며불면 **어른들이** 우는 아이 잡아간다는
망태 **할아버지**를 들먹였던 시절이었다.

(자료 4, 『샘터』, “도시 쓰레기 별곡”)

(23)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던 백지들을 거두어 말없이 교실
을 나갔다.

(자료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24) **남자들**은 자신을 높이거나 어떤 일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테파울로는 말한다.

(자료 1, *Reader's Digest*, "Lies men tell women")

3.2.3 이 름

본 논문에서 이름(name)은 사람고유명사를 가리킨다. 영어와 한국어 모두 (25), (26)과 같이 성의 구분 없이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름으로 한정한다.

(25) a. By 1930, *Trippe* was planing to deliver mail and freight to the far-off Orient.

b. *트리페*는 극동에까지 우편물과 화물을 운송하는 계획을 세웠다.
(자료 1, *Reader's Digest*, "A place where dreams come true")

(26) *Gilbert* forced *Agassi* to believe that he could become what he has become.

(자료 5, *Reader's Digest*, "Ace")

(27), (28)과 같이 영어에서는 '-self', 한국어에서는 '-자신'이 이름 뒤에 위치하여 그 지시 대상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도 이름의 범주 안에 넣는다.

(27) a. In fact, when *Sokdae* came to me, it was very often in the role of savior or problem solver.

b. 오히려 *석대 자신*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대개 한 구원자나 해결사로서 일 때가 많다.

(자료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Our Twisted Hero*)

(28) *Jackson himself* had a loud, booming voice, and when he got enthusiastic, he'd wave his hands.

(자료 1, *Reader's Digest*, "Unforgettable Graham Jackson")

3.2.4 생략

생략(ellipsis)은 문법적인 탈락 현상으로 생략된 부분은 암묵적으로 문맥 내에서 존재하고 생략이 일어난 부분은 문장의 의미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복원될 수 있다(Quirk et al. 1985: 884). 본 논문은 이러한 생략의 개념에 근거하고, 영어와 한국어의 생략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 문장 내에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중요 성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성분이 생략되었다고 한다.

다음의 예를 통해서 생략을 살펴보자. (29)에서는 4개의 동사가 등장했는데 그에 따른 주어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 때 주어가 모두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30)과 같이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나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그 성분이 생략되었다고 한다.

(29) ϕ (I:nom)⁶ 어떠한 일에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ϕ (I:nom) 어떤 힘든 상황에 직면해도 그 역할이 잠시 내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

6) ϕ 는 어떤 성분이 생략되었음을 의미하고 괄호 속에는 생략된 성분의 형태(e.g., I, me)와 그것의 역할(e.g., nominative, dative, accusative)을 명시하였다.

하고, ϕ (I:nom)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역할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ϕ (I:nom) 무조건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힘든 상황은 놀랄 만큼 빨리 극복되었다.

(자료 5, 『샘터』, “연기에 충실한 배우처럼 산다”)

- (30) ϕ (I:nom) 담당 직원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니, 그 담당직원은 확인을 해보고는 나에게 그냥 가라는 것이었다. ϕ (he:nom) ϕ (I:dat)⁷⁾ 한마디 사과도 없고 무슨 이유 때문에 ϕ (I:dat) 계속 편지가 날아 왔는지 어떠한 해명도 없이 ϕ (he:nom) ϕ (I:dat) 그냥 가라는 것이었다.

(자료 4, 『샘터』, “연기에 충실한 배우처럼 산다”)

영어에서는 분사구문일 경우에도 동사에 대한 주어나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생략이 일어났다고 한다. (31)과 같이 분사구문 내에는 동사 앞에 주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생략의 범주에 넣는다.

- (31) After ϕ (he:nom) listening quietly to Sokdae's report, *he* took the stick that was used to clean the blackboard duster and ϕ (he:nom) gave the offender several hard slaps across the palms in this way ϕ (he:nom) endorsing much more strongly

7) 목적어 생략은 대격(accusative)과 여격(dative)을 포함시켰으므로 ‘-에게’와 ‘-을/를’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and effectively than by any words what seemed to me to be
flagrant behavior on Sokdae's part.

(자료 3, *Our Twisted Hero*)

IV. 지시 표현의 유생성 부호화

이 장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지시 표현으로 나타나는 유생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생략, 대명사, 이름, 명사구가 어떤 빈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두 언어가 다른 종류의 지시 표현을 사용한 이유를 유생성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두 언어의 지시 표현의 사용빈도를 비교함으로써 유생성의 부호화 경향을 알아볼 것이다. 논의의 편의상 1인칭에서 3인칭 순으로 살펴보겠다.

4.1 1인칭

4.1.1 단수

1인칭 단수 지시어는 자료 1에서 자료 5까지 조사한 결과 영어에서 총 820개, 한국어에서 총 829개로 나타났다. 1인칭 단수가 생략, 대명사, 이름, 명사구로 나타난 비율은 <표 1>과 같다.

<표 1> 1인칭 단수의 지시 표현 분포

	영 어	한국어
생 략	9.5%(78)	64.8%(537)
대명사	90.5%(742)	35.2%(292)
이 름		
명사구		
합 계	100%(820)	100%(829)

<표 1>에 나타난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대명사와 생략의 사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영어에서는 대명사의 사용빈도가 90.5%로 나타난 반면, 생략은 9.5%로 나타났으므로 생략보다는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64.8%로 대명사보다 더 높게 나타나서 영어에서 사용된 지시 표현의 사용 분포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위와 같은 결과를 실제로 자료에서 발췌한 예를 통하여 살펴보자. 먼저 한국어와 이를 영어로 번역한 평행자료에서 예를 들어보자. 한국어에서는 (32a)와 같이 이야기의 서술자인 1인칭 단수 대명사가 생략된 반면, 영어 번역문에서는 (32b)와 같이 한국어에서 생략된 대명사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복원되었다. 영어와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평행자료도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33a)와 같이 대명사가 사용되었는데 반해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33b)와 같이 영어에서 사용된 대명사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략되었다.

(32) a. 벌써 30년이 다 돼 가지만, ϕ (I:nom) 그해 봄에서 가을까지의 외롭고 힘들었던 싸움을 돌이켜보면, ϕ (I:nom) 언제나 그때처럼 막막하고 암담해진다.

b. It's been nearly thirty years already, but whenever I look back on that lonely, difficult fight, which continued from spring of that year through the fall, I become desolate and gloomy.

(자료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Our Twisted Hero*)

(33) a. *I* never thought *I* could return to a place where "colored" water fountains had once been the order of the day.

b. 한 때 $\emptyset$ (I:nom) “유색인종”의 음료수대가 따로 마련되는 것이 시대의 풍조였던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emptyset$ (I:nom)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자료 1, *Reader's Digest*, "Unforgettable Graham Jackson")

위의 예들은 두 언어에서는 동일한 지시대상이 서로 다른 지시 표현으로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32), (33)을 통하여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었고 한국어에서는 이와 반대로 생략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유생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영어에서 많이 사용된 1인칭 단수 대명사는 화자로서, 감정이입이 가장 많이 되므로 유생성을 강하게 내포하는 지시어이다. 따라서 유생성 위계가 높은 대명사가 영어에서 많이 사용된 것은 이 언어가 유생성을 강하게 부호화 하는 특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1인칭 단수 대명사가 사용되는 대신에 그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한국어가 영어와는 대조적으로 유생성을 약하게 부호화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달리 표현하자면, 영어를 쓰는 문화권과 한국어를 쓰는 문화권과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은 ‘개인주의’가 사회 보편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은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의식은 그들의 말과 행동 더 나아가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영어화자는 발화 시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자하므로 유생성이 높은 대명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대명사가 생략되는 현상도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기저하고 있는 문화·정서와 관련이 있다. 책임의 소재를 부각시키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인의 정서⁸⁾로 인해서 한국어 화자가 유생성이 높은 대명사를 생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음은 한국어에 나타난 특징으로 1인칭을 대신하는 3인칭 명사구 사용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어에서는 사용빈도가 적기는 하지만 (34)와 같이 3인칭 명사인 '필자'가 화자인 1인칭 단수 대명사를 대용하기도 하고, (35)와 같이 화자가 자신의 역할인 '엄마'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지칭하기도 한다.

- (34) 이런 마음을 내어서인지 이상하게도 **필자**가 맡은 사건이 예전보다도 더욱 화해율이 높아졌다.

(자료 5, 「샘터」, “연기에 충실한 배우처럼 산다”)

8) 이규태(1995)의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 '계약의식'과 관련한 한국인과 미국인의 사고 차이를 참조하길 바란다.

- (35) ‘그래도 **엄마**는 너만 무사하면 그만이다’며 속으로 가슴을 쓸
어 내렸지만 **∅ (I:nom)** 그토록 고운 마음씨를 가진 딸에게 차
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자료 4, 『샘터』, “금간 바위틈에 핀 꽃”)

평행자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36a)와
같이 화자가 자신을 지칭할 때 1인칭 지시어를 사용하지 않고 3인칭인
‘선생님’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영어 번역문에서는 (36b)와 같이 화자는 1
인칭 단수 대명사로 번역되었다.

- (36) a.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처리할 것은 엄석대 문제인데 -지난 시
간에 **선생님**이 묻는 방법에 잘못이 있었다.
- b. In this period, we have to deal with the Om Sokdae
problem. There were some mistakes with the way *I* asked
the questions in the last period.

(자료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Our Twisted Hero*)

위의 예들을 통해서 한국어는 1인칭과 3인칭 사용에 있어서 그 경계가
항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인칭 융화(merge) 현상이 일어남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화자는 1인칭으로 자신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3인칭 명
사구를 사용하여 자신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해서 인칭 위계를 다시 언급하면, 1인칭은 가장 많은 감정이입

이 되어 유생성을 강하게 나타내므로 유생성 위계에서 상위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2인칭과 3인칭의 순서로 유생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한국어가 유생성이 가장 높은 1인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유생성이 낮은 3인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유생성을 약하게 부호화 하려는 한국어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료 1에서 자료 5까지의 전체자료를 조사한 결과였다. 자료의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평행자료만을 발췌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자. 이는 동일한 내용을 다른 언어로 나타낸 것이므로 두 언어가 유생성을 부호화할 때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는 영어 원문과 그 한국어 번역문인 자료 1(*Reader's Digest*)과 자료 2(*Newsweek*)를 조사하였고 한국어 원문과 그 영어 번역문인 자료 3(『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2> 1인칭 단수의 평행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번역문)	영어(번역문)	한국어
생략	5.9%(6)	37.8%(39)	10.8%(57)	61.1%(312)
대명사	94.1%(95)	62.2%(64)	89.2%(468)	38.9%(199)
이름				
명사구				
합계	100%(101)	100%(103)	100%(511)	100%(525)

<표 2>에서 우선 영어와 그 한국어 번역문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대명사의 사용빈도가 94.1%로 생략보다 높게 나타났고,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동일하게 대명사 사용이 62.2%로 생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 번역문은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어의 유생성 부호화 경향에서 벗어난 듯 하다. 이것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보다는 대명사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그 영어 번역문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61.1%로 대명사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영어 번역문에서는 대명사가 89.2%로 생략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 번역문이 번역 과정에서 영어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대명사 사용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한국어와 영어 번역문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영어는 유생성이 높은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유생성을 강하게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고 한국어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으므로 그 반대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언어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평행자료에서와 같이 번역의 과정에서 원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비교해 보자. 비슷한 장르이지만 내용은 다른 자료들로서 두 언어의 전형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원문자료를 조사한다. 아래의 <표 3>은 영어 원문으로 구성된 자료 4(Reader's Digest)와 한국어 원문으로 구성된 자료 5(『샘터』)를 조사한 것이다.

<표 3> 1인칭 단수의 원문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Reader's Digest	샘 터
생 략	7.7%(15)	86.5%(186)
대명사	92.3%(179)	13.5%(29)
이 름		
명사구		
합 계	100%(194)	100%(215)

<표 3>에서도 역시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많이 사용된 반면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다. 영어는 대명사 사용빈도가 92.3%로 생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한국어는 생략이 86.5%로 대명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대명사와 생략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표 2>와는 달리 두 언어의 특성들이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1인칭 단수 지시어를 통해 나타난 영어와 한국어의 유생성 부호화 특징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영어는 유생성을 강하게 내포하는 1인칭 단수 대명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유생성을 강하게 나타내려는 경향을 보인 반면 한국어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으므로 영어와는 달리, 유생성을 약하게 부호화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어의 특징으로는 1인칭을 대신하여 3인칭이 사용되는 인칭융화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유생성이 높은 지시어를 대신하여 유생성이 낮은 지시어가 사용된 것이므로 한국어의 유생성을 나타내지 않으려는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1.2 복수

1인칭 복수 지시어는 자료(1-5)를 조사한 결과 영어에서 총 71개, 한국어에서 총 62개로 나타났다. 생략, 대명사, 이름, 명사구의 사용 비율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1인칭 복수의 지시 표현의 분포

	영 어	한국어
생 략	8.5%(6)	61.3%(38)
대명사	91.5%(65)	38.7%(24)
이 름		
명사구		
합 계	100%(71)	100%(62)

1인칭 복수 지시어는 조사 결과 생략과 대명사로 나타났다. <표 4>에 나타난 두 언어의 지시 표현 분포는 1인칭 단수 지시어를 조사한 <표 1>과 유사하다. 영어는 대명사 사용빈도가 91.5%로 생략보다 높게 나타났고 한국어는 생략이 61.3%로 대명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에서 발췌한 예들을 통하여 살펴보자. 평행자료에서 한국어와 그 영어 번역문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37a)와 같이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생략된 반면, 영어 번역문에서는

(37b)와 같이 한국어에서 생략된 대명사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복원되었다. 영어와 그 한국어 번역문을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38a)와 같이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된 반면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38b)와 같이 영어에서 사용된 대명사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략되었다.

(37) a. ϕ (We:nom) 마침 사는 동네가 비슷해서 그와 함께 걸어도 땀
 찹을 듯했지만 나는 굳이 제법 거리를 두고 그를 뒤따랐다.

b. We lived in the same part of town and could easily have gone together, but I was determined to follow him at a little distance.

(자료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Our Twisted Hero*)

(38) a. We argued. We sulked. We laughed. We pitched for favors.

b. 우리는 말다툼도 ϕ (we:nom) 토라지기도 하고 ϕ (we:nom) 웃기도 했어요. ϕ (we:nom) 서로 부모의 환심을 야단이었지요. ϕ (we:nom)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ϕ (we:nom) 귀를 기울이기도 했어요.

(자료 3, *Reader' Digest*, "Most important hour in a child's day")

이와 같이 동일한 지시대상이 영어에서는 대명사로 많이 나타나고, 한국어에서는 생략으로 나타났으므로 두 언어의 대명사, 생략 수치가 각각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러한 현상을 유생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영어에서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었고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다. 따라서 1인칭 단수 지시어를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난 두 언어의 유생성 부호화 특징과 동일하다. 즉, 영어는 유생성이 높은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유생성을 강하게 나타내려는 언어이고 한국어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으므로 유생성을 약하게 부호화 하려는 언어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모든 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한 평행자료만을 비교하여 보자. <표 5>는 평행자료만을 발췌하여 조사한 지시 표현의 분포이다.

<표 5> 1인칭 복수의 평행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번역문)	영어(번역문)	한국어
생략	11.1%(4)	52.6%(20)	8.3%(2)	60.0%(6)
대명사	88.9%(32)	47.4%(18)	91.7%(22)	40.0%(4)
이름				
명사구				
합계	100%(36)	100%(38)	100%(24)	100%(10)

<표 5>에서 영어와 그 한국어 번역문을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대명사 사용빈도가 88.9%로 생략보다 높게 나타났고,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생략이

52.6%로 대명사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그 영어 번역문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대명사 보다 많이 사용되었고 영어 번역문에서는 대명사가 생략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평행자료를 조사한 결과, 영어와 한국어가 지시 표현으로 유생성을 부호화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제는 평행자료를 제외하고 번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원문자료만을 조사한 <표 6>을 살펴보자.

<표 6> 1인칭 복수의 원문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Reader's Digest	샘 터
생 략	0.0%(0)	85.7%(12)
대명사	100.0%(11)	14.3%(2)
이 름		
명사구		
합 계	100%(11)	100%(14)

<표 6>을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1인칭 복수 지시어로 대명사가 모두 사용된 반면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다. 따라서 원문자료에서도 역시 영어는 유생성을 강하게 나타내려하고 한국어는 유생성을 약하게 나타내려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두 언어의 1인칭 복수 지시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유생성 부호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1인칭 단수와 동일하게 1인칭 복수에서도

영어는 대명사 사용이 많은 것으로 보아 유생성을 강하게 나타내려는 언어이고 한국어는 생략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유생성을 약하게 나타내려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4.2 2인칭

2인칭 지시어는 자료(1-5)를 조사한 결과 영어에서 총 189개 한국어에서 총 145개로 나타났다. 2인칭 지시어의 생략, 대명사, 이름, 명사구의 사용 비율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2인칭의 지시 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
생 략	29.1%(55)	65.5%(95)
대 명 사	70.9%(134)	34.5%(50)
이 름		
명사구		
합 계	100%(189)	100%(145)

2인칭에 나타난 영어와 한국어의 유생성 부호화 특징은 대명사와 생략의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영어에서는 대명사의 사용빈도가 70.9%로 생략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65.5%로 대명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위와 같은 결과를 자료에서 발췌한 예를 통해서 실제로 살펴보자. 본 논문에서는 2인칭이 대부분 대화문에서 사용되었다. 먼저 한국어와 그 영어 번역문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39a)와 같이 2인칭 대명사가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서 생략된 반면, 영어 번역문에서는 (39b)와 같이 한국어에서 생략된 2인칭 대명사가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서 복원되었다. 영어와 그 한국어 번역문을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40a)와 같이 명령문의 주어자리에 2인칭 대명사가 생략되었지만 의문문의 주어자리에는 2인칭 대명사가 나타났다. 영어에서는 명령문을 만들 때 문법적인 관례로 *you*를 생략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가 없기 때문에 생략으로 간주한다. 한국어에서는 (40b)와 같이 의문문과 명령문의 주어 자리에서 모두 2인칭 대명사가 생략되었다.

- (39) a. 어쩔래? $\emptyset$ (you:nom) 맞고 입을 열래? $\emptyset$ (I:nom) 좋게 $\emptyset$ (you:dat) 물을 때 $\emptyset$ (you:nom) 바로 댈래? 그게 누구야? $\emptyset$ (you:nom) 누구와 시험 점수를 바꾼 거야?

- b. So how about it? Will it take a beating to get *you* to talk?
Or will *you* answer straight if I ask $\emptyset$ (you:acc) nicely?
Who was it? Who did *you* change grades with?"

(자료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Our Twisted Hero*)

- (40) a. This ranged from " $\emptyset$ (you:nom) Sit up straight" to "Did *you* study your spelling?"

b. " ϕ (you:nom) 똑바로 앉아," " ϕ (you:nom) 철자법 공부 했지?" 등의 말들이 주종을 이루었냐는 것이다.

(자료 1, *Reader's Digest*, "Most important hour in a child's day")

(39), (40)과 같은 예는 평행 자료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두 언어가 동일한 지시대상을 다른 지시 표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영어에서는 대명사 비율이 높아지고 한국어에서는 생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유생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인칭 위계에서 2인칭은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체면손상영향을 끼치고, 1인칭 다음으로 감정이입이 많이 되므로 유생성을 강하게 부호화 한다. 이러한 성질을 지니는 2인칭이 영어에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영어가 유생성을 부호화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대로 한국어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으므로 유생성을 부호화 하는 경향이 약한 언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국어에 나타난 특징으로서 2인칭을 대신하여 3인칭 명사구가 사용된 현상을 살펴보자. 영어에서는 조사 결과 2인칭 지시어로서 명사구가 사용된 예는 없었지만 한국어에서는 2인칭을 대신하여 3인칭 명사구가 사용되었다. (41)에서 선생님은 '엄석대'를 부를 때 2인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의 역할인 '급장'으로 지칭하였다. (42)에서도 화자는 2인칭 지시어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3인칭 명사인 '젊은 사람'을 사용하였다.

- (41) **급장**은 교무실로 가봐, 거기 내 책상 위에 그리다 온 학급 저축 실적 도표를 마저 그리도록, 다른 것은 다 해두었으니까 막대만 붉은색으로 그려 세우면 돼.

(자료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42) “여게는 뭐 볼 꺼 있다고 또 와, 한번 왔으믄 그마이지.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지, 남들 일하는 시간에 이래 돌아 댕기믄 집에는 뭐 먹고 사누”.

(자료 5, 『샘터』, “하모니카 들고 찾아 간 가을”)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어에서 2인칭과 3인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인칭융화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한국어의 특징으로 1인칭과 3인칭의 융화현상을 이야기하였고 이는 한국어가 유생성을 약하게 부호화 하는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유생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2인칭이 그 보다 유생성이 낮은 3인칭으로 지칭된 것은 앞서 언급한 한국어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2인칭을 대신하여 3인칭이 사용되는 현상을 통해서 한국어가 영어와는 다른 유생성 부호화 경향을 가짐을 보았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3인칭을 대신하여 2인칭이 사용된 예가 발견되었다. 평행자료에서 발췌한 예를 살펴보면 (43)과 같이 영어에서는 3인칭 지시어가 사용되었지만, 한국어에서는 ‘당신’이라는 2인칭 지시어가 사용되었다. (44)에서도 역시 한국어의 2인칭 지시어 ‘당신’이 영어에서는 3인칭으로 번역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 a. He never spoke of *his* accomplishments - or about *his* hurts
either.

b. 선생님은 결코 **당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며 당신
이 받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자료 1, *Reader's Digest*, "Unforgettable Graham Jackson")

(44) a. 가엸으신 어른, 이제니까 나는 **당신**을 이해할 듯도 하다.

b. Poor dad! It's only now that I think I understand *him*.

(자료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Our Twisted Hero*)

위의 예들에서는 3인칭을 대신하여 ‘당신’이 사용될 때는 상대방이 자신보다 지위나 나이가 앞설 때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피상적으로 유생성이 높은 2인칭이 유생성이 낮은 3인칭을 대용한다고 결론 짓기 보다는 ‘당신’이 가지는 어휘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한국어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지시어로 나이, 격식,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자신보다 높은 지위나 연령을 가진 인물을 지칭할 때는 유생성의 정도가 약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당신’이 3인칭을 대신하여 담화속에 사용된 것은 나이나 지위가 높은 대상을 지칭할 때이므로 ‘당신’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유생성은 낮아지게 된다.

다음은 전체 자료 중에서 평행자료만을 발췌하여 조사한 <표 8>를 살

펴보자. 두 언어에서 동일한 지시대상을 어떻게 다른 지시 표현으로 나타냈는지를 볼 수 있다.

<표 8> 2인칭의 평행자료의 지시 표현의 분포

	영어	한국어(번역문)	영어(번역문)	한국어
생략	30.3%(10)	64.2%(9)	31.4%(44)	73.2%(85)
대명사	69.7%(23)	35.8%(5)	68.6%(96)	26.8%(31)
이름				
명사구				
합계	100%(33)	100%(14)	100%(140)	100%(116)

<표 8>에서 먼저 한국어와 그 영어 번역문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는데 반해 영어 번역문에서는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었다. 영어와 그 한국어 번역문을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행자료를 통하여 영어에서 사용되는 대명사가 한국어에서는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앞서 논의했듯이, 영어와 한국어가 유생성을 나타내려는 경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은 평행자료를 제외하고 비슷한 장르이지만 내용이 다른 원문자료만을 조사한 <표 9>를 살펴보자.

<표 9> 2인칭의 원문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Reader's Digest	샘 터
생 략	6.3%(1)	78.6%(11)
대명사	93.7%(15)	21.4%(3)
이 름		
명사구		
합 계	100%(16)	100%(14)

<표 9>와 같이 영어에서는 대명사의 사용빈도가 93.7%로 생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78.6%로 대명사보다 높게 나타나서 앞서 살펴본 2인칭 지시어의 빈도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영어와 한국어의 유생성 경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영어는 유생성이 높은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유생성을 강하게 나타내려는 특징을 지닌 반면, 한국어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으므로 유생성을 약하게 나타내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2인칭에서는 1인칭에서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영어에서는 유생성이 강한 2인칭 대명사가 많이 사용된 반면,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다. 이는 영어가 유생성을 강하게 나타내려는 언어이고 한국어는 그 반대의 성격을 지니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2인칭을 대신하여 3인칭이 사용되는 인칭융화현상이 있었다. 유생성이 높은 2인칭을 대신하여 유생성이 낮은

3인칭이 사용된 것은 한국어가 유생성을 약하게 부호화 하려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3인칭

4.3.1 단수

3인칭 단수 지시어는 자료(1-5)를 조사한 결과 영어에서 총 1030개, 한국어에서 총 878개로 나타났다. 3인칭 지시어가 생략, 대명사, 이름, 명사구로 나타난 빈도는 아래의 <표 10>과 같다. 이 표는 이름이나 명사구의 사용이 앞서 조사한 두 인칭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3인칭에서는 다양한 지시 표현의 사용빈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두 언어의 유생성 부호화의 특징을 살펴본다.

<표 10> 3인칭 단수의 지시 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
생 략	15.4%(159)	36.4%(320)
대명사	47.7%(491)	13.9%(122)
이 름	23.6%(243)	22.3%(196)
명사구	13.3%(137)	27.3%(240)
합 계	100%(1030)	100%(878)

먼저 <표 10>에서 생략과 대명사의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대

명사가 47.7%로 가장 높고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자료에서 발췌한 예를 통하여 살펴보자. 우선 한국어와 그 영어 번역문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45a)와 같이 3인칭 단수 대명사의 생략이 일어난 반면 영어 번역문에서는 (45b)와 같이 3인칭 단수 대명사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복원되었다. 영어와 그 한국어 번역문을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46a)와 같이 주어로서 3인칭 단수 대명사가 사용된 반면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46b)와 같이 영어에서 사용된 대명사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략되었다.

(45) a. $\emptyset$ (he:nom) 조금전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가 들어서자 $\emptyset$ (he:nom) 아이들을 보며 $\emptyset$ (he:nom) 주먹만 높이 흔들어 보았다. 너희들 알았지 - $\emptyset$ (he:nom) 꼭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b. *I don't know what he had just been saying, but when I got into the classroom, he looked at the children and $\emptyset$ (he:nom) brandished his fist high in the air. "You understand, don't you?" is what he seemed to be saying.*

(자료 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Our Twisted Hero*)

(46) a. *Instead, with the same methodical discipline he'd learned on the football field, he focused on making his restaurant*

efficient, his employees friendly.

- b. 오히려 $\emptyset$ (he:nom) 운동장에서 배운 조직적인 규율에 따라 $\emptyset$ (he:nom) 가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emptyset$ (he:nom)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종업원들을 가르쳤다.

(자료 1, *Reader's Digest*, "Give yourself the winning edge")

위와 같이 영어에서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고 한국어에서 생략이 많이 일어나는 예들이 자료에서는 많이 발견된다. 그런데 3인칭에서는 1, 2인칭에 비하여 생략과 대명사가 두드러지게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3인칭에서 이름, 명사구와 같은 지시어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생략과 대명사의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은 유생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살펴보자. 앞서 1, 2인칭의 조사 결과와 같이, 영어에서는 유생성이 강한 대명사가 많이 사용된 반면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다. 이는 영어가 유생성을 강하게 부호화 하려는 특징을 지닌 반면 한국어는 그와 상반된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1, 2인칭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략과 대명사의 사용빈도를 비교함으로써 두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유생성이 낮은 3인칭에서는 그에 맞게 유생성을 약하게 부호화 하는 지시어로 이름, 명사구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번에는 이러한 지시 표현들의 사용빈도를 개별성 위계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자.

<표 10>에서 보듯이 영어에서는 대명사의 사용빈도가 47.7%로 가장

높고, 이름이 23.6% 그리고 명사구가 1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명사구가 27.3%로 가장 높고, 이름이 22.3% 그리고 대명사가 1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시 표현들은 개별성 위계에서 살펴보았듯이 각자가 내포하는 유생성의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유생성 위계가 생긴다. 개별성 위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대명사는 유생성이 가장 높고, 이름, 명사구 순으로 유생성이 낮아진다. 영어에서 사용된 지시 표현은 유생성이 높은 대명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름, 명사구 순으로 사용빈도가 줄었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유생성이 낮은 명사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름, 대명사 순으로 사용빈도가 줄어서 영어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영어는 유생성이 높은 지시 표현일수록 많이 사용하는 유생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언어이고 한국어는 유생성이 낮은 지시 표현일수록 많이 사용하므로 유생성을 약하게 나타내려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체자료에 나타난 3인칭 단수 지시어의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1, 2인칭에 비해서 특히 3인칭에서 많이 사용된 이름이나 명사구 중에 특정한 단어를 지정하여 두 언어를 비교하자. <표 11>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Our Twisted Hero*에서 명사구 '선생님'과 'teacher'를 각각 지정하여 그것이 생략, 대명사, 명사구, 이름의 지시 표현으로 나타난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표 11> 특정 명사구의 지시 표현 분포

조사 항목	Our Twisted Hero 'teacher'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선생님' (%)
생 략	15.8%(16)	39.1%(29)
대명사	47.5%(48)	6.7%(5)
이 름		
명사구	36.7%(37)	54.2%(40)
합 계	100%	100%

영어에서는 'teacher'이 대명사를 통해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한국어에서는 명사구로 많이 나타났다. 'teacher'의 이름 사용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화자가 학생의 신분이므로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름을 제외한 후 대명사와 명사구의 사용빈도를 비교해 보자.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명사구보다 많이 사용된 반면 한국어에서는 명사구가 대명사 보다 많이 사용되어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특정한 단어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영어는 유생성의 위계가 높은 지시어를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유생성을 강하게 부호화 하는 언어이고 한국어는 그 위계와 반대되는 순서로 지시어가 사용되었으므로 유생성을 약하게 부호화 하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자료의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평행자료만을 발췌하여 조사한 <표 12>를 살펴보자.

<표 12> 3인칭 단수의 평행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번역문)	영어(번역문)	한국어
생 략	14.2%(65)	32.2%(135)	14.3%(59)	38.8%(122)
대명사	45.6%(208)	18.1%(76)	49.5%(203)	9.8%(31)
이 름	28.2%(128)	27.1%(113)	19.4%(79)	23.6%(74)
명사구	12.0%(55)	22.6%(95)	16.8%(69)	27.8%(87)
합 계	100%(456)	100%(419)	100%(410)	100%(314)

먼저 영어와 그 한국어 번역문을 살펴보자.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름, 명사구 순으로 사용빈도가 줄었다. 반면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명사구, 대명사 순으로 사용빈도가 줄었다. 지금까지 한국어가 가지는 유생성 부호화 특징을 보면, 유생성이 낮은 명사구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유생성이 높은 이름이 3인칭 단수 지시어로 많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한국어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영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는 한국어와 그 영어 번역문을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명사구, 이름, 대명사 순으로 사용빈도가 줄었다. 영어 번역문에서는 이와 달리 대명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름, 명사구 순으로 사용빈도가 줄었다. 한국어 번역문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영어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어와 그 영어 번역문을 조사한 결과, 여전히 한국어와 영어의 유생성 부호화 경향은 앞서 조사한 결과와 일치한다. 한국어는 유생성 위계가 낮은 순으로 3인칭 단수 지시어가 사용되

었으므로 유생성을 약하게 부호화 하는 언어이고 영어는 그 반대로 유생성을 강하게 부호화 하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평행자료를 제외하고 번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문자료만을 조사하여 두 언어를 비교해 보자.

<표 13> 3인칭 단수의 원문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Reader's Digest	샘 터
생 략	21.3%(35)	43.4%(63)
대명사	48.8%(80)	10.3%(15)
이 름	22.0%(36)	6.3%(9)
명사구	7.9%(13)	40.0%(58)
합 계	100%(164)	100%(145)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름, 명사구 순으로 사용빈도가 줄었다. 즉 유생성이 높은 지시 표현일수록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영어가 가지는 유생성 부호화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 다음으로 사용된 지시 표현은 명사구가 많고 이름, 대명사 순으로 사용빈도가 줄었다. 이는 한국어가 지금까지 보여준 유생성 부호화 경향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샘터에서 발췌한 글들의 대부분은 1인칭 시점으로 이름이 많이 사용될 수 없는데, 이것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3인칭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유생성 부호화 특징은 첫

제로 1, 2인칭에서와 동일하게 생략과 대명사의 빈도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둘째는 대명사, 이름 그리고 명사구 사용빈도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었다. 우선 영어에서는 대명사 사용이 많은 반면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다. 1, 2인칭보다 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유생성이 낮은 3인칭이 약한 유생성을 내포하는 지시 표현들 즉, 이름이나 명사구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명사, 이름 그리고 명사구가 많이 사용된 빈도 순으로 위계를 정해보면 이것은 곧 개별성 위계와 일치한다. 영어는 유생성이 가장 높은 대명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름, 명사구 순으로 사용이 줄었으므로 유생성을 강하게 나타내려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어는 유생성이 낮은 명사구 사용이 가장 많고 이름, 대명사 순으로 사용이 줄었으므로 개별성 위계의 역방향으로 지시 표현들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영어와는 달리 유생성을 약하게 나타내려는 언어임을 알 수 있다.

4.3.2 복수

3인칭 복수는 자료(1-5)를 조사한 결과 <표 14>에서 보듯이 영어에서 총 292개, 한국어에서는 총 272개가 나타났다.

<표 14> 3인칭 복수의 지시 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
생 략	10.6%(31)	30.8%(84)
대명사	31.1%(91)	9.5%(26)
이 름	2.7%(8)	2.2%(6)
명사구	55.6%(162)	57.5%(156)
합 계	100%(292)	100%(272)

3인칭 복수의 지시어로 명사구는 두 언어에서 모두 많이 사용되었다. 영어에서는 명사구의 사용빈도가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명사 사용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공통적으로 명사구 사용이 높게 나타났고 영어와는 대조적으로 생략이 많이 일어났다.

다음은 위의 결과를 자료에서 발췌한 예들을 통해서 살펴보자. 먼저 한국어와 그 영어 번역문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47a)와 같이 3인칭 복수 대명사가 모두 생략된 반면 영어에서는 (47b)와 같이 3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었다. 영어와 그 한국어 번역문에서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48a)와 같이 3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된 반면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48b)와 같이 3인칭 복수 대명사가 생략되었다.

(47) a. 오히려 ϕ (they:nom) 석대가 나를 남달리 생각하는 걸 눈치
채고 ϕ (they:nom) 놀이 같은데서 서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애를 썼다.

b. In fact, ϕ (they:nom) noticing that Sokdae had a special
regard for me, *they* tried to get me for their team when we
played games.

(자료 3,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 과 *Our Twisted Hero*)

(48) a. *She* has found that people's voices often get higher or
shakier when they lie, and *they* are more likely to stumble
over words.

b. ϕ (she:nom)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는 흔히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떨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ϕ (they:nom) 거짓
말을 할 때에는 심중팔구 말을 더듬게 된다.

(자료 1, *Reader' Digest*, "Lies men tell women")

위와 같은 예들은 자료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영어의 대명사가 한국어에
서는 생략되고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일어난 성분이 영어에서 대명사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이러한 현상을 유생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우선 생략과 대명
사를 조사한 결과,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었고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으므로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유생성이 높은 대명사를 많이 사용한 영어는 유생성을 강하게 부호화 하는 특징을 지닌 반면 생략이 많이 일어난 한국어는 유생성을 약하게 부호화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영어와 한국어에서는 명사구 사용이 많은데, 이는 3인칭 복수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3인칭 복수는 1, 2인칭에 비해서 개별성이 떨어지므로 그에 맞게 유생성이 낮은 지시 표현이 사용된다. 실제로 자료 안에서도 3인칭 복수 명사구는 대명사로 지칭되기보다는 다시 복수 명사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the parents’, ‘the couple’과 같이 복수의 의미를 띄는 명사들이 많이 나타났으므로 명사구 수치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는 전체자료에서 내용이 다르므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평행자료만을 비교해 보자. <표 15>는 평행자료에 나타난 두 언어의 3인칭 복수 지시어의 분포도이다.

<표 15> 3인칭 복수의 평행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영어	한국어(번역문)	영어(번역문)	한국어
생략	8.8%(15)	28.9%(35)	16.1%(11)	30.3%(24)
대명사	32.3%(55)	9.9%(12)	30.8%(21)	6.3%(5)
이름	4.2%(7)	4.9%(6)	0.0%(0)	0.0%(0)
명사구	54.7%(93)	56.1%(68)	53.1%(36)	63.4%(50)
합계	100%(170)	100%(121)	100%(68)	100%(79)

3인칭 복수의 평행자료에서 영어와 그 한국어 번역문을 살펴보면, 영어

에서는 대명사의 사용빈도가 32.3%이고 명사구가 54.7%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명사구가 56.1%로 높게 나타났지만 영어와는 달리 생략이 28.9%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국어와 영어 번역문을 비교해 보면 한국어에서는 명사구의 사용빈도가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략도 30.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어 번역문에서는 명사구가 많이 사용된 점에서 한국어와 동일하지만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어서 한국어와 차이를 보인다. 평행자료에서도 3인칭의 본질적 성격으로 두 언어가 모두 3인칭 명사구를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대명사 사용이 많고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미루어 영어는 유생성을 강하게 부호화하고 한국어는 유생성을 약하게 나타내는 특징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비슷한 성격을 지니면서 번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원문자료만을 비교해 보자. <표 16>은 3인칭 복수의 원문자료에 나타난 지시 표현들의 빈도를 조사한 표이다.

<표 16> 3인칭 복수의 원문자료의 지시 표현 분포

	Reader's Digest	샘 터
생 략	14.7%(5)	34.7%(25)
대명사	32.3%(11)	12.5%(9)
이 름	5.8%(2)	0.0%(0)
명사구	47.2%(16)	52.8%(38)
합 계	100%(34)	100%(72)

영어에서는 대명사 사용빈도가 높으면서 명사구도 많이 사용되었다. 한국어에서는 명사구가 많이 사용된 점에서 영어와 유사하지만 생략이 많이 일어났으므로 영어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문자료에서도 <표 13>, <표 14>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영어와 한국어는 3인칭 복수의 지시 표현 중에서 유생성이 낮은 명사구 사용이 많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두 언어에 모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3인칭 복수의 성격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3인칭 복수는 개별성이 낮으므로 그에 맞는 표현도 유생성이 낮은 명사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평행자료를 조사한 결과, 두 언어는 여전히 유생성을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는 유생성이 높은 대명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유생성을 강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어는 생략을 많이 일어났으므로 유생성을 약하게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유생성은 생명의 유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개별 언어에 의미·기능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생성이 영어와 한국어에서 지시 표현으로 어떻게 다르게 부호화 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언어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지시 표현은 개별성 위계와 인칭 위계를 근거로 하여 유생성의 정도를 말해준다. 따라서 생략, 대명사, 이름, 명사구가 1, 2, 3인칭에서 사용된 빈도를 조사함으로써, 두 언어의 유생성 부호화 특징을 알 수 있다. 조사한 결과는 개별성 위계와 인칭 인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개별성 위계는 한 개체가 얼마나 식별가능한지를 말해주는 지시 표현의 위계이다. 즉 대명사, 이름, 명사구가 지닌 유생성의 정도를 말해주는 데, 이 중에서 대명사는 유생성이 가장 높고 이름, 명사구 순으로 유생성이 낮아진다. 세 개의 인칭을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영어에서는 유생성이 높은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었고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많이 일어났다. 특히 3인칭을 조사한 결과, 영어에서는 유생성이 높은 대명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름, 명사구 순으로 사용빈도가 줄어들어서 유생성이 높은 지시 표현일수록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생략뿐만 아니라 유생성이 낮은 명사구가 많이 사용되었고 이름, 대명사 순으로 사용빈도가 줄어드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영어는 유생성이 높은 지시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유생성을 강하게 부호

화 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 한국어는 생략이 일어나거나, 유생성이 낮은 지시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유생성을 약하게 부호화 하는 특징을 가진다.

인칭 위계는 지시어 본질의 위계로서 1인칭, 2인칭 그리고 3인칭의 위계를 말한다. 1인칭은 화자로서 유생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인칭, 3인칭 순으로 유생성이 낮아진다. 한국어에서는 1인칭 지시어가 그보다 유생성이 낮은 3인칭 지시어로 대용되는 인칭 융화 현상이 일어났다. 2인칭에서도 그보다 유생성이 낮은 3인칭 지시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가 유생성을 약하게 부호화 하는 언어임을 말해 준다.

이상과 같이 영어와 한국어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지시 표현이 각자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언어가 유생성을 나타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즉 영어는 유생성이 높은 지시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유생성을 강하게 부호화 하는 언어인 반면, 한국어는 생략이 많이 일어나고 유생성이 낮은 지시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유생성을 약하게 부호화 하는 언어이다.

ABSTRACT

Animacy Scale and the Choice of Referential Expressions in English and Korean

Kim, So-you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to discuss the use of referential expressions such as pronouns, proper names, common nouns and zero anaphora in English and Korean in terms of animacy scale. In this study, two kinds of written language data are analysed. First, a parallel corpus consists of original English texts with Korean translation and original Korean texts with its English translation. Second, original texts of two languages are chosen common with similar genre but differing content. The frequency of ellipses, pronouns, names and common nouns used is investigated through first person, second person and third person in each language. These

items encode different animacy gradience in light of hierarchy of persons and individuation scale.

The results of our text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the use of pronouns is predominant in English whereas ellipses are used very frequently in Korean; Second, the Korean first person with high level of animacy is replaced with second person or third person which are less animate than the first. This study shows that the concept of animacy can provide a unitary explanation for apparently unrelated phenomena: English tends to encode animacy strongly whereas Korean tends to suppress animacy.

참고 문헌

- 김은일. 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 71-96.
- 이규태. 1995. 『한국인이 의식 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 Anderson, S. R. and E. L. Keenan. 1985. "Deixis".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3: Grammatical Categories and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ker, M. 1995.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An Overview and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In T. Givón (ed.),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 Brown, P. and S. Levinson. 1978.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 In E. N. Goody (ed.), *Questions and Pol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mrie, B.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oft, W.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ly, W. A. and R. D. Van Valin, Jr. 1985. "Information Packaging in the Clause".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1: Clause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wler, R. 1977. *Linguistics and the Novel*. London: Routledge.

- Halliday, M. A. K. 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nold.
- Halliday, M. A. K. and R.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Hinds, J. 1983. "Topic Continuity in Japanese". In T. Givón (ed.),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 _____. 1986. *Situation vs. Person Focus*. Tokyo: Kuroshio Shuppan.
- Lakoff, G. 1987. *Women, Fire, Dangerous Thing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 W.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2: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eech, G. N.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Locke, J. 1694. "Of Identity of Diversity". In J. Locke,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2nd ed.* Reprinted in J. Perry (ed.) (1975), *Personal Ident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yons, J. 1977. *Semantics,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ühlhäusler, P. and R. Harre. 1990. *Pronouns and People*. Oxford: Basil Blackwell.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Yamamoto, M. 1999. *Animacy and Reference*. Amsterdam: John Benjamins.